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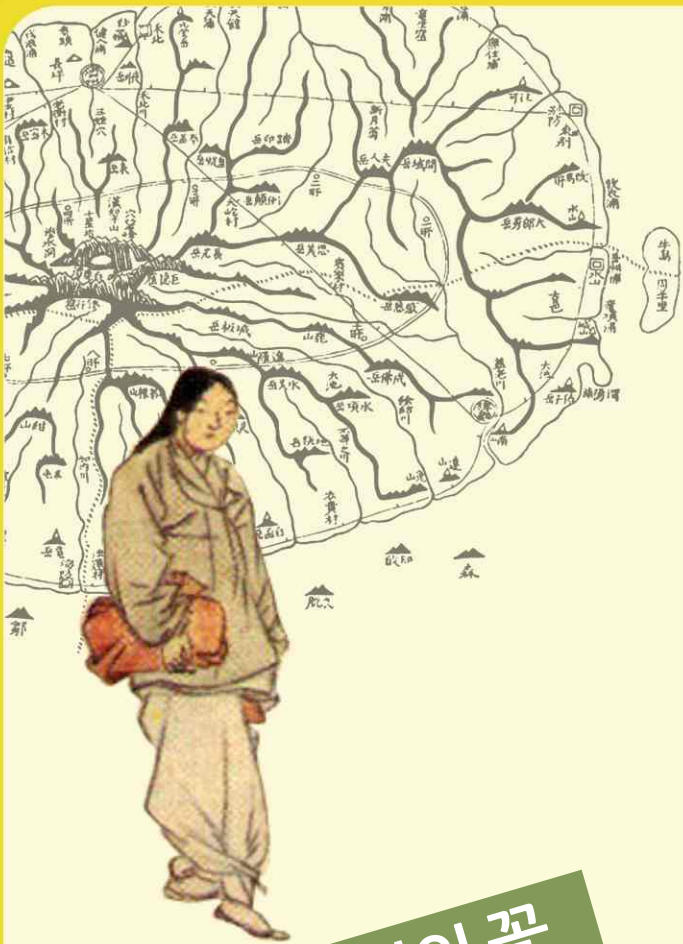
상자를 열면?

목판 木版 체험 상자

인쇄 문화의 꽃,

국립제주박물관 학교연계프로그램
보급형 교구상자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과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판 체험 상자] 교구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목판 체험 상자]의 활용을 위한 안내서로, 사용된 이미지와 놀이방법은 한국문화콘텐츠닷컴의
허가를 받고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국립제주박물관 / 기획: 이애령(학예연구실장) / 진행: 한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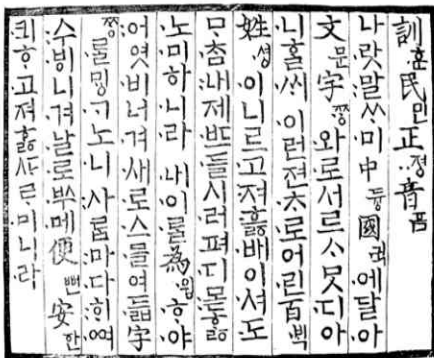
인쇄문화의 꽃 목판 木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책 인쇄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판 인쇄>입니다. 글자나 모양이 거꾸로 새겨진 면에 먹물을 바르고 찍어내는 옛 인쇄 기술이지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양의 종이를 인쇄할 수 있는 것도 목판인쇄술의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목판인쇄 木版印刷의 역사

한국의 목판 인쇄술은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쇄문화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1966년 10월 경주의 불국사 경내에 있는 석가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불경이 모셔졌던 석가탑이 751년 김대성(金大城)에 의해 불국사가 중창될 때 세워졌으므로 이 불경은 신라시대 무렵 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려에 전승되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 목판 인쇄의 최고라고 일컫는 고려의 대장경(大藏經)이 탄생했습니다. 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비롯한 불교관계 서적을 집대성한 불교총서를 말합니다. 고려 대장경은 11세기와 13세기 두 차례에 걸쳐 판각되었는데 처음 제작된 것을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 다음에 제작된 것을 재조대장경(再彫大藏經)이라고 구분합니다. 처음 제작된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며, 우수한 판각과 많은 양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한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이후 다시 조판된 재조대장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물 소개



훈민정음 언해본

소중한 글자들을 찾아 모으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담은 1443년에 창제된 한문해설서이다. 《훈민정음》은 다시 한문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한문본)>과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훈민정음(언해본)>으로 구분된다. <훈민정음(한문본)>에는 한글의 제자 원리와 그 예시를 든 ‘해례(解例)’, 다시 말하면 문자에 대한 설명[解]과 예시[例]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훈민정음(해례본)>이라 부른다. <훈민정음>은 목판본으로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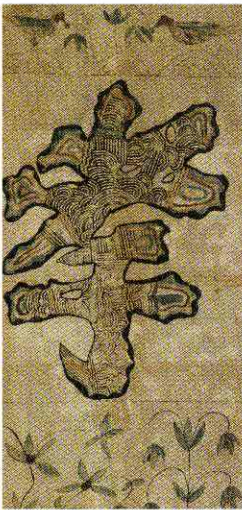
* 본 체험물은 우리 한글의 소중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언해본)>의 글자를 새롭게 집자하여 제작하였음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50cm×세로3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55cm×세로35cm
- ◆ 소장: 간송미술관

제주효제문자도 濟州孝悌文字圖

<문자도>는 수호, 부귀, 자손번창, 길상(吉祥), 유교의 덕목인 ‘효제충신예의엄치孝悌忠信禮義廉恥’의 의미를 담은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그 중 <효제문자도>는 ‘효제충신예의엄치’라는 유교의 윤리관을 여덟 글자로 압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효제문자도 양식이 바다를 건너온 후 제주의 경제, 문화, 환경적 여건에 맞게 변형과 창작을 거친 것이 바로 <제주효제문자도>이다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30cm×세로5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35cm×세로55cm
- ◆ 소장: 제주대학교박물관



김홍도 金弘道 단원풍속도첩 - 자리짜기

어린 아들의 글 읽는 소리에 맞추어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어머니는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내고 있다. 아들은 낮에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을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레 막대기로 짚어가며 읽어 보이고 있다. 부모는 글 읽는 아들이 대견스러워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모른다. <자리짜기>에 서는 서민 가정의 유일한 희망을 읽을 수 있다.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30cm×세로5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35cm×세로55cm
-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金弘道 단원풍속도첩 - 대장간

아무런 배경 없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달군 쇠를 '모루'에 대주는 사람, 이를 쇠파치로 내리치는 사람들, 다 된 연장을 솥뚜껑에 깔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견습생인 듯 한 이는 '풀무'에 바람을 넣는 듯 줄을 잡아당기고 있다. 담금질하는 데 쓰이는 기다란 목제 함지박도 보이고, 여러 공구를 담은 나무 상자도 보인다.

- *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 * 풀무: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30cm×세로5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35cm×세로55cm
-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金弘道 단원풍속도첩 - 씨름

두 무리의 구경꾼들이 화면의 위아래에 둥글게 모여 있고 그림의 중심에는 서로 맞붙어 힘을 겨루는 두 사람의 씨름꾼, 그 왼쪽에는 옛장수의 모습도 보인다.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30cm×세로5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35cm×세로55cm
-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상자를열면?

목판木版 체험상자

인쇄 문화의 꽃,

국립제주박물관 학교연계프로그램

보급형 교구상자



김홍도 金弘道 단원풍속도첩 - 활쏘기

활쏘기를 배우는 활터의 여러 모습을 한 화폭에 담았다. 한명은 갓을 쓰고 '전복을 입고 있는 군인으로부터 활 쏘는 자세를 교정 받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바위에 걸터앉아 화살을 살피고 있으며, 또 다른 한사람은 정강이로 활을 구부리고 있다.

*전복 : 조선후기에 무관들이 입던 옷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30cm×세로5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35cm×세로55cm
-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金弘道 단원풍속도첩 - 벼타작

일꾼들이 벼단을 메어치는 모습과 누군가가 누워서 이를 감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뒤에서 감독하는 듯한 사람은 마름이라고 하는데, 몰락한 양반이나 집주인으로 농사일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꾼들은 열심히 일하는 반면, 마름은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은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30cm×세로5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35cm×세로55cm
-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대동여지도목판大東輿地圖木板 중 제주도

전국 방방곡곡이 한눈에, 대동여지도

김정호(金正浩)가 새긴 <대동여지도(보물 1581호)>의 제작 시기는 1861년이고 이후 몇 차례의 수정과 경을 거쳤다. 각종 지명, 산줄기, 하천, 역, 봉수(烽燧) 등 다양한 요소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는데 판각의 기법이 매우 정교하다. 목판에는 수정했던 흔적도 남아 있는데, 이전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좀 더 나은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제주도의 부분만 체험물로 다시 제작하였다.

*본 체험물은 제주도의 지명을 일부분만 판각하였음.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50cm×세로3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약 가로55cm×세로35cm

목판 인쇄 준비사항

[교구상자 준비사항]체험물, 고무롤러, 문진, 구두솔,



[개별준비] 규격에 맞는 한지, 먹물, 롤러, 쟁반



목판 인쇄 과정

